



달을 찾아온 소녀

조영선

달골마을 뒤산 나지막한 벼랑아래에 있는 달샘은 참으로 신기한 샘이었습니다.

별빛 하나 없이 캄캄한 밤에도 달샘에서 비쳐나오는 은은한 빛은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어 다투어 피어나는 연분홍진달래의 빛갈까지도 다 가려볼수 있었습니다.

샘물속을 들여다보면 하늘의 밝은 달과 똑같이 생긴 달이 그속에도 있었는데 밝은 빛은 바로 샘물속의 달이 뿌리는 빛이었습니다.

하늘의 달은 날이 새면 저버리지만 달샘속의 달은 낮에도 밤에도 그냥 떠있었고 하늘의 달이 아예 숨어버리는 그믐밤에도 샘속의 달은 여전히 떠서 오붓한 초가마을을 비춰주곤 했습니다.

달골마을사람들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서둘러 달샘으로 달려가 동이마다 샘물을 퍼담았습니다. 그러면 물동이마다에 그대로 달이 비졌는데 그 물동이를 방안에 들여놓으면 등잔불을 켜놓은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달샘을 한쪽박 퍼내어 꽃나무에 뿌려주면 파란 잎새마다 물방울들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마다에도 그대로 달이 비껴 마치 꽃나무들에 은빛구슬알들이 대롱대롱 맺힌것 같았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시원한 달샘을 한종지 마시면 온몸이 하늘을 나는듯 거뜰해졌습니다. 앓던 사람도 한모금의 달샘이면 어느새 자리를 털고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달샘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

움만을 안겨주는 귀중한 보배샘이었습니다.

달골마을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면 꼭 달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사내애들이 태어나면 달쇠, 달남이, 달동이, 처녀애들이 태어나면 달녀, 달순이, 달옥이라고 지었습니다.

달동이라는 소녀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달동이의 얼굴은 샘속의 달처럼 동그스름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통통한 볼에 곱게 생겨나곤 하는 볼우물에마저도 달이 비낀것 같이 환한 아이였습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의 눈동자는 찰랑이는 달샘을 그대로 옮겨놓은것만 같았습니다.

달동이는 누구보다도 달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달샘터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면 수십리 먼길을 걸어 귀한 나무모도 떠왔고 차디찬 강물속에서 비취색의 조약돌을 건져다 곱게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달동이는 웃음이 절로 나는 재미있는 옛말보다도 고향에 달샘이 생겨나던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달샘에서 흘러나오는 달빛이 온 마을을 포근히 감싸안은 저녁이면 달동이는 나이많은 할아버지걸을 떠나지 않고 달샘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밤에서 부지런히 김을 매나가던 농부는 문득 땅속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일손을 멈추었

습니다.

(웬 빛이 땅속에서 흘러나오는걸가?)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던 농부는 그만에야 두 눈을 딱 감아버렸습니다.

갑자기 두 눈을 찌르듯이 밝은빛이 흘러나왔기때문이었습니다.

농부가 다시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니 땅속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에 눈부시게 둥근달이 비껴있었습니다.

달거울에서 비쳐나오는 빛에 어둠속에 묻혀있던 마을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달거울을 소중히 싸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농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귀한 보배거울이 생겨났구만!》

《이제 보게, 우리 마을에 복이 산처럼 찾아올걸세. 하늘에도 땅에도 달이 빛을 뿌리니 말일세.》

달거울을 쏘아보며 기뻐하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농부는 말했습니다.

《이 달거울을 마을뒤산 바위벼랑에 걸어놓자요. 그럼 마을이 얼마나 환해지겠나요.》

이렇게 되어 달거울은 마을뒤산 바위벼랑우에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달거울이 뿌려주는 환한 달빛아래서 밤에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심고 가꾼 곡식마다 크고 알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대풍에 마을에서는 웃음소리가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사흘동안 억수로 쏟아붓는 비에 마을에는 큰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검푸른 하늘을 헤가르며 내리꽂히던 번개가 바위벼랑에 걸려있는 달거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순간 달거울은 감때사납게 날뛰는 흙탕물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속이 한줌만 하여 바위벼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농부는 소스라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달거울!》

그것은 내버려도 되고 잃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태를 묻은 이 땅을 풍요하게 가꿔가라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향의 재부였습니다. 농부의 뒤를 따라 여러 사람들이 어깨를 견고 따라섰습니다.

바위벼랑쪽으로 헤엄쳐간 그들은 기승을 부리는 물결과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달거울을 찾으며 물속에 잠겼다가는 다시 솟구치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슴아프게도 달을 찾지 못한채 영영 물속에 휘말리고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시꺼먼 비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가에 그들을 찾고부르는 애절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타는 부름소리에 기가 죽었던지 몹쓸 장마는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그리며 달거울이 걸려있던 바위벼랑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름다운 새들이 향기 젖은 꽃잎들을 물고와서는 벼랑아래로 자꾸만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잎두잎 꽃잎들이 떨어진 곳에서 어렵게 밝은 빛이 비쳐나오고있었습니다.

(혹시 달거울이 저곳에 묻혀있는게 아닐가?)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선 달거울이 아니라 맑은 샘이 풍풍 솟구쳤는데 그 샘물속에 달거울에 있던것과 똑같이 둥근달이 비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거울을 지켜내려고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고향의 아들들의 넋이 그대로 달이 되어 샘물에 비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겨진것이 오늘의 달샘이었습니다. 그 옛말을 듣고 또 들으며 달동이는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고향의 달샘을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아름답게 가꿔갈테야.)

어느날 이른새벽 달동이는 자기 키보다 더 큰 마당비를 둘러메고 달샘터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제집마당을 쓸기 전에 달샘 주변부터 깨끗이 쓰는 달동이였습니다.

달샘에서 비쳐오는 환한 빛이 달동이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달동이가 샘터가까이 가닿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더니 무엇인가 시꺼먼것이 달샘위로 날아내렸습니다.

시꺼먼 그림자는 달샘을 쪽쪽 들여마시더니 달동이가 미처 어쩔새도 없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을은 먹물을 뿌려놓은듯 한 어둠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달빛에 곱게 드러나있던 오솔길도, 새벽이슬을 머금은 꽃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달을 훔쳐간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달동이는 어둠속에 묻힌 오솔길을 가까스로 헤쳐 달샘터에 이르렀습니다.

달샘 주변은 새까맣습니다.

동녘하늘이 푸름히 밝아오기 시작하자 달샘터주변에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는것이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달동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것은 청룡의 발자국이었던것입니다. 《청룡이 이런짓을 하다니...》 마을의 논밭들이 마를 때면 드문히 비구름을 몰고와서 도와주던 청룡이였습니다.

그러던 청룡이 달을 훔쳐가다니 어찌된일이겠습니까.

《청룡을 찾아가 달을 찾아오고야말겠어.》

달동이는 청룡이 살고있는 룡계산으로 떠났습니다.

구름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룡계산꼭대기에는 푸른 물 출렁이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서 청룡이 살았습니다.

가파로운 룡계산에 오르기가 말처럼 험치 않았습니다.

한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질수 있었고 아차하면 보기에도 끔찍한 독가시나무들에 몸을 할퀴울수도 있었습니다.

독가시나무들은 바늘끝보다 더 뾰족한 독가시창을 해빛에 번뜩이며 달동이의 연약한 몸에 독을 뿌려넣을 기회만 노리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달동이는 물러설수 없었습니다. 한치한치 뚫아오를수록 무서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혀주던 고향의 달샘을 생각하니 무서움도 봄눈처럼 녹아내려 힘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루해가 누엿누엿 서산쪽으로 기울무렵에야 달동이는 청룡이 살고있는 호수가에 닿았습니다.

때마침 청룡이 잔잔한 호수에서 하얀 물갈기를 일으키며 헤엄을 치고있었습니다. 달동이는 청룡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마른 사정이를 밟았습니다.

《딱-》하는 소리가 조용하던 호수가에 울렸습니다.

청룡은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나 빠르게 돌아섰던지 회오리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오리바람에 달동이는 가랑잎마냥 허공으로 말려올라갔습니다.

이때 청룡이 날아와 달동이를 구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낙없이 높고높은 룡계산마루에서 떨어졌을것입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니? 그렇게 깜짝 놀래

울건 또 뭐냐.》

청룡은 이렇게 말하며 달동이를 갓난애기 다루듯 조심히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달동이는 청룡의 두눈을 이윽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호수처럼 맑고 푸른 그의 두눈엔 비단결 같은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었습니다.

(이런 청룡이 우리 마을의 귀중한 달을 왜 훔쳐갔을까?)

달동이는 청룡에게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달때문에 이 험한 곳까지 올라왔단 말이냐?》

달동이는 청룡에게 고향의 달샘에 깃든 사연을 눈물속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난 청룡은 몹시 미안해하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청룡은 무서운 눈병을 앓고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푸르던 두눈은 마른 딱잎처럼 변해갔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별반 차도가 없었습니다. 청룡이 맥을 놓고 있을 때 샘속의 달을 먹으면 병을 고칠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룡은 그길로 달골마을에 날아가 샘속의 달을 먹어버렸던것입니다. 그가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영영 앞을 보지 못했을것입니다.

청룡의 이야기에 달동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달을 먹다니, 아- 그럼 우리 마을 달샘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말았단 말이냐!》

피로움에 모대기는 달동이를 진정시켜주며 청룡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내 몸안에 있단다. 어둠이 깃드는 밤이 되어야 달은 없어질거야. 그러니 야야, 너무 걱정말아. 내가 달을 돌려주겠어.》

청룡의 진정이 달동이는 고마왔습니다.

그러나 달을 찾는다면 그는 소경이 될것입니다.

청룡이 소경이 되어버리면 마을은 어떻게 돕겠습니까.

심한 가물과 큰물이 마을을 휩쓸것이고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모든것을 날려버릴것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달동이는 청룡에게 물었습니다.

《청룡아, 달이 없어도 병을 고칠 방도는 없겠니?》

그러자 청룡은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하더니 끝내 아무 말도 않고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말할게 있는듯싶은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저물겠는데 달동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달도 귀중하지만 너는 더없이 귀중하단다. 그러니 어서 말해줘.》

달동이의 절절한 부탁에 청룡은 몹시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청룡의 말을 듣고난 달동이의 얼굴엔 수심이 어렸습니다.

청룡의 말을 되새길수록 달동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호수의 물로 얼굴을 씻게 되면 달동이의 눈가에는 두개의 눈물구슬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청룡이 먹으면 달이 없어도 병은 낫겠지만 달동이는 영영 앞을 보지 못합니다.

고향의 푸른 솔밭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꿈만 펼치던 달동이는 일생을 어둠속에 허둥거릴것입니다.

달동이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호수의 푸른 물이 철썩이며 두눈을 빼앗아갈것만 같았습니다.

호수가에서 슬며시 눈길을 돌린 달동이는 저녁노을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아래 달샘에 대한 자랑을 안고살던 고향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보이던 고향, 부드러운 달빛 흐르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고향은 질은 어둠속에 숨을 죽이고있을것입니다.

(아! 이런 때 옛말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백번 다시 일어나 고향에 달빛이 흐르게 하였을거야. 그런데 난...)

달동이는 그들처럼 살고싶었습니다. 그들

이 바란대로 고향땅을 기쁨지고 풍요하게 가꾸고싶었습니다.

달동이는 찰박찰박 기슭을 치는 호수의 푸른 물을 한껏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어 심한 눈아픔이 시작되더니 팔알같은 눈물구슬이 달동이의 두눈가에 맺혔습니다.

그 순간 달동이는 햇빛 한점 없는 시꺼먼 동굴안에 들어온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동이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렸습니

다. 달동이는 더 밝게 웃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구슬을 청룡에게 내밀었습니다.

청룡은 달동이의 작은 두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

청룡이 눈물구슬을 입안에 넣자마자 눈빛이 더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은 앞 못 보는 달동이를 등에 태우고 달골마을을 향해 날았습니다. 저녁노을에 붉게 물든 구름들이 발아래서 살같이 흘렀습니다.

(이 애는 어쩌서 자기의 눈을 바치면서까지 달을 찾아갈까?)

달동이를 등에 태우고 가면서도 청룡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

습니다.

달동이는 청룡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고향의 달에는 마을사람들의 넋이 깃들어있단다. 우린 그 넋을 고향땅에 대를 두고 물려가야 하거던.》

《마을사람들의 넋이 깃든 달!》

청룡은 달동이의 말을 입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느덧 달샘터에 내려앉은 청룡은 몸안에 있던 달을 샘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흐려있던 달샘이 맑아지더니 유정한 달빛이 마을하늘가에 서서히 퍼졌습니다.

달동이는 손더듬을 하며 샘터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동이는 꿀맛같은 달샘을 처음 마시듯 맛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눈에 하늘의 별처럼 총총한 빛이 어렸습니

다. 갑자기 흘러든 밝은 빛에 달동이의 두눈은 초생달모양이 되었습니다.

《야! 눈이 보인다, 눈이...》

달동이는 뚝뚝 솟아오르는 달샘을 은하수 흐르는 하늘가에 힘껏 뿌려올렸습니다.

그 물방울마다에도 달이 비껴 고향하늘가에는 은빛꽃보라가 휘뿌려진것 같았습니다.

《내 고향의 아름다운 달샘아, 천년이고 만년이고 더 밝은 빛을 뿌려라.》

달동이는 하늘로 날아오른 청룡에게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